

# 월간미술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7  
한국문화재단  
KACFOS

2014 07  
www.monthlyart.com



## 미술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가나문화재단,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회장 사재로 출범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이 사재 3억 원을 털어 가나문화재단(이사장 김형국)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20여 년간 수집한 230여 점의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을 기증하고 매년 3억~5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단운영비도 출연키로 했다. 화랑주가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해외에선 전례가 꽤 있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이엘러미술관이나 프랑스의 매그미술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재단 측은 앞으로 레지던시, 전시, 출판,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기금 마련과 후원회 구성을 위한 기타 부대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사업으로 가나현대미술관(가칭)을 건립하기로 했다.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지낸 김형국 초대 이사장(사진)은 “이번에 기증된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 중에는 우리 근현대미술사에 남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작품도 있다”며 “올해 연말쯤 기증작 중 일부와 오윤, 정종여 등의 미공개 작품을 발굴하여 전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단 설립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으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우리 공공미술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예술원의 어제와 오늘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전 열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년을 기념해 <어제와 오늘전>을 4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해 1954년 문을 열었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예술원은 한국 미술계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화단의 맥을 이어왔으며, 오늘날에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79년부터 매년 근현대미술사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전을 통해 한국미술 발전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이번 전시는 예술원 미술분과 작고 회원 35명과 현 회원 22명의 대표 작품 79점을 선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의 유서 깊은 전통을 계승하는 전시이자,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또한, 대한민국예술원 60년사와 작가들을 예우하고 축하하는 미술계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서보의 삶을 파헤치다

<Park Seo-Bo: From Avant-garde to Ecriture> 발간



싱가포르 출판사 booksactually에서 작가 박서보의 삶과 예술을 연대기적으로 짚어낸 책, <Park Seo-Bo: From Avant-garde to Ecriture>(2013)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1980년대 이후의 삶과 작업 일대기를 당시 있었던 굵직한 사건, 행사, 전시 이미지와 젊은 시절의 인물사진과 함께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 케이트 림(임연기)은 박서보와 심도있는 인터뷰를 수차 진행했으며 작가의 말을 바탕으로 그의 젊은 시절을 독자에게 가감없이 전한다. 영문으로 발간되어 국제 미술시장에 박서보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자금성의 레드를 말하다

사진가 송영숙, <THE RED> 발간



자신만의 스타일로 폴라로이드 프로세스를 완성한 작가 송영숙이 1998년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던 <송영숙 사진전> 전시작을 비롯해 당시에 촬영한 폴라로이드 원본을 중심으로 구성한 사진집 <THE RED>가 출간되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자금성의 모습을 재해석한 53점의 이미지를 작가 주명덕이 선정해 기획 편집하고 사진심리학자 신수진, 문화비평가 홍가이의 글이 실렸다. 한편 이 책은 가현문화재단이 사진 출판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1979년부터 사진 출판을 선도해온 도서출판 시각을 인수한 후 발간한 첫 사진집이다.



## 신미술회 창립 40주년 맞아

<제61회 신미술회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신미술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제61회 신미술회전>이 열렸다. 신미술회(회장 이승환)는 1974년 2월 설립된 한국신미술회를 모태로 하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창립전을 시작으로 한국 구상미술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토대에는 당시 한국 구상미술의 대표 작가인 박득순 김창락 김인승 안재후 등 창립회원의 역할이 컸다. 신미술회는 프랑스의 쇼몽시와 캐나다의 토론토 초대전을 비롯한 해외 초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김천 등 각 지역의 미술관과 유명 갤러리 초대전을 통해 한국 구상미술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왔다. 현재 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각자가 왕성한 작품 활동에 임하고 있다.

